

막는다 '판타스틱4' vs 믿는다 '나테이박'

〈니퍼트·보우덴·장원준·유희관〉

〈나성범·테임즈·이호준·박석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두산 보우덴, 니퍼트, 장원준, 유희관.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NC 나성범, 박석민, 이호준, 테임즈.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9일 잠실 개막

두산 니퍼트 22승 등 15승 이상 선발 4명
NC, 깨어난 테임즈·최강 필승조에 기대

201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

경기 시작: 평일 오후 6시30분, 주말과 공휴일 오후 2시
우천 등으로 경기가 열리지 못하면 다음 날로顺延

한국시리즈 (7전4선승제)	NC	두산
1차전 10월29일(토) 잠실	1	2
2차전 30일(일) 잠실	2	1
3차전 11월1일(화) 마산	3	2
4차전 2일(수) 마산	4	1
5차전 3일(목) 마산	5	2
6차전 5일(토) 잠실	6	1
7차전 6일(일) 잠실	7	2

올해 한국시리즈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잠실구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역대 한 시즌 최다승(93승) 신기록으로 21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두산 한국시리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오른 NC는 뒤집기로 창단 첫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시리즈 1~2, 6~7차전은 잠실에서, 3~5차전은 마산 창원구장에서 펼쳐진다. 양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기는 처음이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딱 한 차례 대결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어 5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두산이 3승 2패로 한국시리즈 티켓을 획득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두산이 9승 7패로 앞섰다. ◇ 두산 '판타스틱 4' 앞세워 한국시리즈 2연패 노린다 = 두산의 최대 강점은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마운드에 있다. 정규시즌에서 무려 70승을 합작한 더스틴 니퍼트(22승), 마이클 보우덴(18승), 유희관(15승), 장원준(15승) 등 탄탄한 선발진은 두산의 자랑거리다. 그중에서도 단연 니퍼트가 압도적이다. 29일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은 니퍼트가 나선 것이 유력하다. 타선의 무게감 역시 압도적이다. 두산은 팀 타율 0.298로 1위, 팀홈런 183개로 1위다. 3할 타자 6명과 20홈런 이상 타자 5명을 보유하고 있다. 소총과 대포가 같은 비율로 뛰어난 팀이 바로 두산이다. 수비 또한 전체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안정됐다. 두산은 정규리그에서 팀 실책이 79개로 가장 적었다. 백업 전력까지 탄탄한 두산은 공·수·주

전력이 완벽해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산의 약점이 불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용찬과 홍상삼이 제대한 뒤의 두산 불펜은 다른 팀에 뒤지지 않는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불펜투수였던 정재훈의 엔트리 합류가 불투명하기 하지만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 NC '나테이박' 파괴력과 불펜 짜임새로 두산 넘는다 = 지난해까지 두 번의 포스트 시즌에서 모두 첫 관문에서 탈락한 NC는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3승 1패로 일축하고 1군 4시즌 만에 한국시리즈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에릭 테임즈의 음주 운전, 이재학의 승부 조작 혐의 조사 등으로 어수선해진 팀 분위기 탓에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포스트 시즌은 결국 선발 싸움인데, 15승 투수만 4명을 보유한 두산에 맞서는 NC는 에릭 해커-재크 스투어트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선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NC는 최대 장점인 방망이와 불

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NC는 올해 박석민의 가세로 막강하던 중심타선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며 '나(성범)-테(임즈)-이(호준)-박(석민)'이라는 공포의 타선을 완성했다. 이들 4명이 정규시즌에서 때려낸 홈런만 115개에 달한다. LG(118홈런) 등 웬만한 팀 홈런 수에 육박하는 수치다. 4차전에서는 테임즈의 홈런까지 나왔고, 1~3차전에서 13타수 1안타로 부진했던 나성범 역시 4차전에서 5타수 2안타로 되살아나며 한국시리즈 활약을 예고했다. 불펜진 역시 NC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원종현-김진성-임창민-이민호 등 필승조는 10개 구단 중 최고로 평가받는다. 7차전까지 치르는 한국시리즈에서는 '원투펀치'를 두 차례 사용할 수 있다. 해커-스투어트의 '원투펀치'가 실전 감각이 떨어진 두산 타선을 상대로 기선 제압에 성공하고, 3~4선발의 불안함을 불펜진의 짜임새로 극복한다면 의외의 승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두산 vs NC 정규리그 전력 비교

두산	2016년	NC
1위	시즌 순위	2위
93승1무50패	시즌 성적	83승3무58패
9승7패	상대전적	7승9패
0.298	타율	0.291
4.45	평균자책점	4.48
183	홈런	169
982	탈삼진	1147
85	도루	99
935	득점	857
79	실책	100

한국시리즈 (7전4선승제)	두산	NC
1차전 29일(토) 잠실	1	2
2차전 30일(일) 잠실	2	1
3차전 1일(화) 마산	3	2
4차전 2일(수) 마산	4	1
5차전 3일(목) 마산	5	2
6차전 5일(토) 잠실	6	1
7차전 6일(일) 잠실	7	2

클루버 완벽투...클리블랜드, WS 기선제압



시카고에 6-0 완승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WS·7전4승제) 첫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카고 컵스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홈 구장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컵스에 6-0 완승을 거뒀다. 이번 월드시리즈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우승하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클리블랜드는 1948년 이후 68년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는 '와우 추장의 저주', 컵스는 1908년 이후 108년이나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염소의 저주'에 걸려 있다고도 한다. 이날은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투수 코리 클루버와 거포로 변신한 포수 로베르토 페레스가 와우 추장의 저주 기운을 물리쳤다. 클루버는 선발로 등판해 6이닝 동안 컵스 타선을 불넷 허용 없이 4피안타로 공공 묶었다. 삼진은 9개나 잡아냈다. 클루버는 이날 개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에서 선발투수가 됐다. 특히 3회까지

8탈삼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월드시리즈 역사상 최초 기록이다. 반면 컵스 선발투수 존 레스터도 삼진 7개를 잡았지만, 5%이닝 6피안타(1피홈런) 3볼넷 3실점(3자책)으로 무너졌다. 월드시리즈 3전 3승으로 괴력을 발휘한 명성에도 금이 갔다. 1회말부터 클리블랜드 타선은 레스터를 흔들었다. 2사 후 중전 안타로 출루한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활약이 빛났다. 린도어는 2루를 홈치면서 레스터의 집중력을 빼앗았다. 레스터는 마이크 나폴리와 카를로스 산타나에게 연속 볼넷을 던지면서 2사 만루를 만들었다. 다음타자 클리블랜드 호세 라미네스는 3루 내야안타로 선취점을 냈다. 4회말에는 9번타자 포수 페레스가 깜짝 홈런을 터트렸다. 올해 정규시즌 홈런이 3개뿐이었던 페레스는 이날 레스터를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맞고 떨어진 솔로포로 점수를 3-0으로 벌렸다. 클리블랜드에도 위기가 있었다. 7회초 클루버가 선두타자 벤 조브리스에게 안타를 맞아 벤치는 곧바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인 앤드루 밀러로 투수를 교체했다. 밀러는 볼넷과 안타를 내줘 무사 만루에 몰렸다. 그러나 후속 타자들을 뜯고, 삼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넘겼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첫 경기에서 25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카고 컵스를 6-0으로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클리블랜드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페레스는 이날 4타수 2안타(2홈런) 4타점 2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클리블랜드와 컵스는 27일 열리는 월드시리즈 2차전 선발투수로 각각 트레버 바우어, 제이크 아리에타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한화 쇼타 고조 타격 코치 KIA 합류

KIA 타이거즈의 2017시즌을 이끌고갈 코칭스태프가 확정됐다. 올 시즌 한화에서 활약했던 쇼타 고조 타격 코치가 새로 합류했다. 1군은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조계현 수석코치, 박홍식·쇼타 고조 타격코치, 이대진·홍우태 투수코치, 나가무라 타케시 배터리코치, 김민호·김태룡 수비코치, 김중국 주루코치, 박종하 전력분석 코치로 구성된다. 정희열 감독이 이끄는 퓨처스팀은 홍세완·박재용 타격코치, 유동훈 투수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 김창희·김민우 수비 코치, 김정수 재활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3군은 백인호 총괄코치, 김선진 타격코

치, 신동수 투수코치, 김성규 수비 코치가 이끈다. 새로 합류하는 쇼타 고조 코치는 박홍식 코치를 도와 1군 타격을 맡는다. 올 시즌 은퇴 후 전력분석 코치로 활약했던 김민우 코치는 퓨처스 리그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KIA는 추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의 코치진을 추가로 영입할 방침이다. KIA 관계자는 "올 시즌 1군에 있었던 홍세완, 유동훈, 김창희 코치는 코치 육성 차원에서 퓨처스로 보직을 이동했다"며 "이들은 각각 타격·투수·수비 분야 메인 코치를 맡아 주도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신 때문에...이대은·오지환 경찰야구단 신체검사 탈락

이대은(27·전 지바 롯데 마린스)과 오지환(26·LG 트윈스)이 경찰야구단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대은과 오지환은 25일 제348차 의무경찰 특기자 선발시험 신체검사를 치렀으나 탈락 판정을 받았다. 문신이 탈락 사유였다. LG 소속인 오지환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서였다. 상무에 지원할 수 나이 제한(만 27세)도 1년 남았다. LG는 "올해 입대와 내년 입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무작 신분인 이대은이다. 2015

년과 2016년 일본 지바 롯데에서 뛰던 이대은은 구단과 재계약 협상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신일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진출해 2년 동안은 KBO리그 구단과 계약할 수도 없다. 이대은은 야구를 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경찰야구단 혹은 상무 입대를 원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면서 일이 꼬였다. 일단 이대은은 경찰야구단 혹은 상무가 추가 모집을 할 경우, 재응시를 할 생각이다. 추가 모집 기회가 없으면 현역 입대까지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